



예거 르쿨트르, 호쿠사이에 경의를 표하는 두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타임피스 출시

- 일본인 예술가의 목판화인 *기소카이도 길에 있는 오노의 폭포*와 *요시츠네가 야마토 지방의 요시노에서 말을 씻긴 폭포*를 리베르소의 케이스백에 정교하게 재현했습니다.
- 미니어처 페인팅,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공예를 선보이는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전문성을 보여줍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창립 초기부터 아시아 모티프를 활용해왔으며, 동양의 장식 공예를 적용한 특별한 시계를 통해 약 2,000 년 간 이어져 온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문화 교류를 포용 및 계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랑 메종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19세기 예술가인 가쓰시카 호쿠사이(Katsushika Hokusai)의 작품을 미니어처 페인팅 에나멜로 재현한, 두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시계를 통해 이러한 전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두 작품은 바로 *기소카이도 길에 있는 오노의 폭포(Kisokaidō Ono no bakufu)*와 *요시츠네가 야마토 지방의 요시노에서 말을 씻긴 폭포(Washū Yoshino Yoshitsune uma arai no taki)*입니다.

호쿠사이의 명성은 그가 *우키요에* 회화에 가져온 혁신적인 접근법에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에도 시대 일본 상인의 향락적인 생활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장르를 풍경과 식물, 동물을 포함하는 더욱 폭넓은 장르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모델에 재현된 두 작품은 호쿠사이가 그린 *지방 폭포 순방기(Shokoku taki meguri)*라는 제목의 *우키요에* 회화 8장 연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1831년부터 1833년까지 일본의 본섬인 혼슈를 2년 동안 여행하면서 경험한 감동적인 풍경을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장인들은 2021년, 키리후리 폭포를 묘사한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델로 이러한 작품에 경의를 표한 바 있으며, 2022년에는 아미다 폭포를 재현했습니다. 2023년에



출시되는 두 가지 새로운 작품은 일본 거장에 대한 찬사를 이어가며 그랑 메종의 정신에 내재된 자연에 대한 깊은 애착을 반영하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자연 세계에 매료된 일본의 위대한 거장

구성과 색채 사용에 있어서 혁신적이었던 호쿠사이(c.1760–1849)는 삽화가이자 판화 제작자, *우키요에* 예술가였으며, 그의 생애 동안 목판화는 *우키요에* 그림을 재현하는 수단으로 번성했습니다. 호쿠사이의 명성으로 인해, *우키요에*와 목판화는 일본 미술에 대한 서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연작인 *후지산 36 경(Thirty-Six Views of Mount Fuji)*에는 예거 르쿨트르가 2018년 리미티드 에디션 리베르소에 재현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The Great Wave off Kanagaw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폭포 순방기*는 우키요에 회화에서 낙하하는 물이라는 주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예입니다.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들은 압도적인 폭포로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폭포의 아름다움과 힘을 포착하다

*오노의 폭포*는 역사적인 수도인 교토와 에도(현재의 도쿄)의 도쿠가와 쇼군의 거주지를 연결하는 옛길에 위치한 나가노현의 유명한 장소를 묘사합니다. 폭포 옆 바위 곳에 작은 신사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 다리 위에는 한 무리의 유랑자들이 낙하하는 물의 힘에 경외심을 느끼며 서 있습니다. 그림의 구성은 두 개의 우뚝 솟은 절벽 사이로 물이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묘사하여 이러한 힘의 감각을 증폭시킵니다.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놀라운 물리적 현상이 신령(kami) 또는 신도(Shinto) 신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믿었고, 호쿠사이는 그의 물활론적인 신념을 반영하여 강력한 생명력으로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요시노 폭포*는 일본의 유명한 설화인 미나모토노 요시츠네 장군(Minamoto no Yoshitsune 1159년-1189년)의 일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시라카와(Go-Shirakawa) 천황과 연합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반역자로 여겼던 형에게서 도망친 장군은 요시노산(현재의 나라현)에서 잠시 쉬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씻겨주었습니다. 강렬하고 그래픽적인 구성에서 폭포의 힘찬 곡선은 나무가 늘어선 깊은 계곡을 통과하는 물의 힘을 표현합니다. 손가락을 펼친 채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자연과 인간, 동물의 관계에 대한 신랄한 탐구를 보여줍니다.



미니어처의 예술성과 정밀성

리베르소 케이스백의 미니어처 페인팅은 최소 14 겹의 에나멜을 사용하는 제네바 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각각의 에나멜 층은 다음 에나멜을 적용하기 전 800°C 에서 소성되어 총 80 시간의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에나멜 장인은 완전히 다른 매체에 호쿠사이의 원본 색상(그라데이션 *보카시*/효과 포함)을 재현하는 기술적 위업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원본의 약 10 분의 1 크기로 모든 디테일을 정확하게 재현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각 프레임의 상단 부근에 있는 카르투슈일 것입니다. 원본 캡션은 정확하고 읽기 쉬운 상태로 초소형 사이즈에 수작업으로 직접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위업을 이루는 것 외에도, 에나멜 장인은 본래 예술가의 의도와 터치를 표현하고 각 작품에 감정적인 울림과 영혼의 감각을 불어넣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리베르소 트리뷰트 타임피스 특징인 각면 처리된 애플리케이션 아워 마커와 도피네 핸즈, 레일웨이 미닛 트랙을 갖춘 앞면 다이얼의 단순하고 간결한 스타일은 정교한 미니어처 그림과 대조를 이룹니다. 겹으로 드러나는 간결함은 작품 뒤에 숨어 있는 정교한 장인정신을 잊게 만듭니다. 두 다이얼의 배경은 수공 기요세로 완성되었으며 *오노 폭포*의 패턴은 고전적인 발리콘 디자인으로, 3-4 시간에 걸쳐 공을 들인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시노 폭포*를 위해, 장인은 800 개 이상의 선으로 구성된 마름모꼴 패턴을 적용했는데, 각 선은 선반을 5 번 통과하여 완성됩니다(총 4,000 번 통과). 이는 기요세에만 8 시간의 작업이 소요됨을 의미합니다. 기요세 작업이 완료되면 반투명 그린 에나멜을 4-5 겹 도포하며, 각 층마다 별도의 소성 및 건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주일 동안 총 8 시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술과 문화 세계에 대한 그랑 메종의 비전을 구현하고, 발레드주 매뉴팩처 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재능을 선보이는 두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시계는 창의적 표현을 위한 캔버스로서의 리베르소와 그 무한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 오노 폭포

케이스: 화이트 골드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앞면 다이얼: 발리콘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폐쇄형 –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스트랩: 블랙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9334T5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 요시노 폭포

케이스: 화이트 골드

크기: 45.6 x 27.4mm, 두께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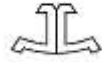
앞면 다이얼: 마름모꼴 기요세, 그랑 퓨 에나멜

케이스백: 폐쇄형 –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 페인팅

스트랩: 블랙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9334T4

리미티드 에디션: 10 피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동안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